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6중고에 시달려 온 일본 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국 진출 증가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높은 법인세와 엔화 강세 등 이른바 '5중고(五重苦)'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공급 부족까지 가중돼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내수 시장의 위축과 취약해진 공급망 등까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은 2000년 15.9%에서 2010년 25.1%로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발표한 2011년도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제조업 603개사 중 해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87.2%로 전년 대비 4.4% 많았다...(중략)

강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일본팀장

- 제860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